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국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1. 12. 12 ~ 2021. 12. 31 제258호



포토에세이

MERRY CHRISTMAS



▲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한 광장. 제공: WMM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민족 찬양하여라!

여기,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한 광장에 공연을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 “자~ 멋진 공연을 해요!” 악기의 음색을 따라 하나, 하나의 선율이 쌓여가며 이내 풍성하고 아름다운 연주로 거리를 물들인다. 콘트라베이스는 낮은 울림으로 전체를 받쳐주지만 드러나지 않아도 좋다. 카혼은 리듬을 맡아 모두의 중심을 잡는다. 기타의 화음이 소리를 채워주기 시작하면, 그때 색소폰은 중후한

목소리를 낸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각자 다른 음역대와 음색의 조화로운 연주는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있는 복음의 증인들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각자의 특성과 역할이 다르지만 선교완성의 그 날을 위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지금은 2000년 전 오셨던 아기 예수를 노래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이들은 역사

를 마치시는 왕이신 예수를 노래하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민족 찬양하라. 죽임당한 어린 양을 영원히 찬양하라!” 마라나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에베소서 2:21-22) [GPNEWS]

한국교계,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보호법이다”

2차 성명 통해 동성혼 합법화 반대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독교 연합기관들이 지난달에 이어 12월 1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한기총),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이철·장종현 목사, 한교총),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한교연)은 공동성명을 통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동성애 보호법을 만드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동성혼 합법화에 대해서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혔는데, 지난 11월 25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대통령 임기 말임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대한민국에는 이미 장애, 남녀, 인종,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으며, 2020년 리얼미터의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1000명 중 2명, 그것도 온라인에서 경험했다고 조사됐는데도, 동성애 관련 독소조항을 포함하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것은, ‘동성애’를 보호하는 법을 단적으로 만들기에 민망하기에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꼼수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호도하지 말고, ‘동성애 보호법’이라고 분명하게 명명하길 바란다고, 차별금지라는 허울 좋은 명목하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독소조항을 삽입하여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의 사회 근간을 무너뜨리며, 방종을 법으로 보호하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으며 동성애는 ‘경향

의 문제가 아닌, ‘죄악된’ 행동의 문제라며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자의적으로 행하는 죄악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든다면, 법으로써 마땅히 추구해야 할 공의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에서는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서슴없이 들어가고, 남자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남자를 막은 직원과 사업장이 처벌을 받는다고, “이러한 해괴망측한, 한국 국민의 정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허용하라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현재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악법 제정을 막기 위한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진행하며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G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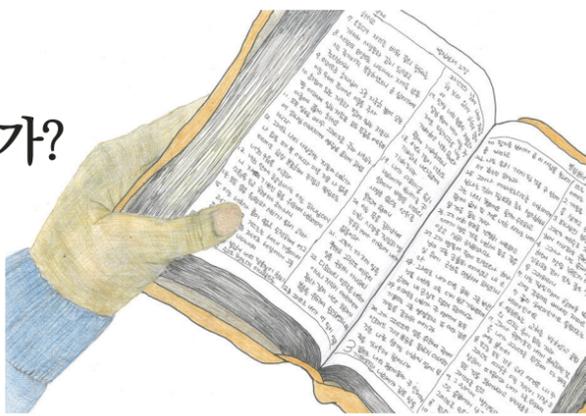
마음의 눈을 밝히사 (42)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누군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인가요?” 그 사람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더러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악하다고 생각되는 죄를, 어떻게 짓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그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왜 어려운지 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입니

까, 아니면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입니까?” 그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과 동일한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솔직히 그저 반복해 외우는 염불 수준도 안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되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지 않으면 되고, 법적 제재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휴전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은 왜입니까? 넘어가면 죽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



일러스트=김경선

들은 자기 계산으로 결론이 나면 그 이상의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알려진 음식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다이어트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살 빼는데 도움이 된다 싶으면 평생 저녁을 안 먹을 수 있습니다. 능력입니다. 사

람은 자기가 가치를 인정하고 실제로 받아들인 만큼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로마서 3:18)라는 성경의 선언은 정확합니다. [G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전화

복음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분들은 연락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운영시간 10-22시
상담시간 40분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1670-3160

‘2021 다시복음앞에 대회’, 강사진 확정... 존 맥아더 목사 참여키로

4일간, 10명의 강사진 통해 다양한 영역의 회복이 선포된다



▲ 2019 다시복음앞에 대회 현장. © 복음기도신문

오는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리는 ‘2021 다시복음앞에 대회’ 강사진이 최종 확정됐다.

‘그 영광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복음의 회복, 나라와 민족의 회복, 교회와 성도, 다음세대의 회복 등의 주제로 전하는 강사진 가운데 미국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존 맥아더 목사가 참여한다고 대회 사무국이 11월 26일 밝혔다.

12일 주일 밤 집회에서 ‘복음, 그 영광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를 필두로 4일간 열리는 대회는 하루 세 차례 주제별 강의와 기도 회로 이어진다.

대회 2일째인 13일에는 한국순교자의소리 에릭 폴리 목사가 ‘성도의 소명 회복’을 주제로 오전 강의를 맡는다. 에릭 폴리 목사는 그동안 북한과 박해받는 열방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와 성경보급, 각종 물품 전달 등의 사역을 통해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섬겨왔다. 또 이날 낮 시간 강의에 참여하는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 성경적 세계관을 토대로 이 같은 법제화의 문제점 등을 지적해왔다. 이날 저녁 시간은 오랫동안 북한 사역을 섬겨오다 북한 정권에 강제로 구인돼 31개월간의 옥고를 치르고 석방된 임현수 목사(토론토 큰빛교회 원로)가 맡는다.

대회 3일째인 14일에는 지난해 경남기독교연합회장을 역임하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예배 중단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을 때, 지자체장에게 요청해 교회의 대면예배를 원천차단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예배의 자유를 지켜낸 거제 고현교회 박정곤 목사가 오전 순서를 맡는다.

이어 낮 시간에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강압적인 예배중단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지켜내며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의 부흥을 이끌어낸 존 맥아더 목사가 마이크를 잡는다. 저녁 시간에는 무슬림지역에서 교회개혁 등 전방개척선교와 함께 국내에서 말씀과 기도로 선교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지오선교회 대표 주수가 선교사가 선포한다.

마지막 날인 15일은 아프리카의 우간다와 케냐 선교사로, 또 알래스카 최초의 한국감리교회를 개척하고 현재 서울에서 청장년을 대상으로 기도와 선교를 통해 교회의 회복을 꿈꾸는 최상훈 목사(화양감리교회)와 올바른 성윤리의 성경적 원리를 중심으로 한 강의와 에이랩 아카데미를 통해 성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있는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의협회)가 참여한다.

마지막 시간은 ‘예수면 다다’ ‘진리가 결론이다’ 등의 간결한 구호와 총체적 복음의 진리로 한국교회에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전하며 잠자는 영혼들을 일깨워온 김용의 선교사(복음의빛선교회 대표)가 메시지를 선포한다. [GPNEWS]

美 법률단체, 크리스마스 검열 기준으로 ‘나쁜 업체’, ‘좋은 업체’ 선정

미국의 한 법률단체가 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나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좋은 업체’를 발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보수 법률단체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은 최근 성탄절을 ‘휴일’로 표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침묵하고 자체적으로 검열하는 소매업체 13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단체에 의해 ‘나쁜 업체’로 선정된 기업에는 종합유통업체인 타겟(Target), 의류 브랜드 갭(GAP), 약국 체인 월그린(Walgreens), 서점 체인 반스앤노블(Barnes & Noble), 미국 백화점 체인인 로드 앤 테일러(Lord and Taylor), 벌링톤 코트 팩토리(Burlington Coat Factory), 티제이 맥스(TJ Maxx)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스포츠 용품 매장 체인 아카데미 스포츠+아웃도어(Academy Sports + Outdoors)와 디스 스포팅 굿즈(Dick’s Sporting Goods), 의류 브랜드 J크루 아웃피터즈(J. Crew Outfitters)와 로프트(The Loft), 의류 소매 업체인 더 리미티드(The

Limited), 약국 체인 라이트 에이드(Rite Aid Pharmacy)가 포함됐다.

맷 스태버 리버티 카운슬 설립자 겸 회장은 소비자들에게 크리스마스를 검열하는 소매업체들을 알리므로써 사람들이 어디에서 소비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명단 공개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 명단은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수정된다.

예수 탄생 장면, 메리 크리스마스 문구 사용 기업 24개

리버티 카운슬은 크리스마스를 인정하고 기념하는 ‘좋은 업체’ 명단도 발표했다. 여기에 포함된 기업은 24개로 미국의 백화점 체인점인 메이시스(Macy’s), JC 페니(JC Penny), 콜스(Kohl’s), 노드스트롬(Nordstrom) 벨크(Belk) 등 5곳과, 소매점 체인 배스앤바디웍스(Bath & Body Works)가 포함됐다. 또 주택 용품점 체인 로우스(Lowe’s), 할인 유통업체 케이마트(Kmart), 건축 인테리어 도구 업체 홈디포(The Home Depot), 소매업체 하비로비(Hobby Lobby)와 빌

스(Bealls), 전자제품 유통업체 베스트바이(Best Buy), 고급 호텔 회사인 라스(Loews) 등도 있다. 이들 업체들은 ‘크리스마스’ 문구나 예수 탄생 장면, 메리 크리스마스 장식 등을 제품 라벨이나 웹 사이트에 사용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빌리그래함전도협회(BGEA) 대표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지난 수십년 동안 크리스마스에 적대감을 표출하는 사례들이 점차 증가해 왔고 이러한 공격이 최근 들어서는 전쟁의 양상을 띠기에 이르렀다.”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배타적 진리에 대한 증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짚었다. 크리스마스를 기독교적으로 기념하는 것을 꺼린다고 해도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영혼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어떠한 시도도 이 진리를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구원 얻는 백성이 날마다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G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중양아, 복음 전한 부부 고소당해

중양아시아에서 한 기독교인 부부가 청소년 두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고 최근 오픈도어 선교회가 전했다. 복음을 들은 15세, 17세 청소년들은 부부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 각자 부모에게 자신들이 들은 복음을 나누자 부모들이 부부를 고소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당한 재판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주시고, 신앙을 나누고 복음을 전한 부부가 처벌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인 두 명의 청소년들이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 그들의 부모들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나이지리아, 플라니 목동 습격... 4세 포함 기독교인 10명 사망

지난달 26일 나이지리아 플라토주의 한 마을에서 플라니 목동 무장세력들의 습격으로 4세 어린이를 포함한 기독교인 10명이 사망하고 가옥 100여 채가 불탔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기독교단체 국제기독교연대(ICC)는 이번 공격으로 난민 700여 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독교인을 말살하려는 폭동과 살인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나이지리아에 주님의 십자가 승리를 선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속히 사탄을 멸하시어 무릎 꿇게 하시며 더 이상 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 강행... 기독교계 시민공청회 일인시위 등으로 총력 반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독교계와 교회, 시민단체들이 차별금지법 반대 시민공청회, 일인시위, 반대서명, 기도회 등을 통해 악법 반대의 뜻을 전하고 있다.

기독교계는 물론 시민들이 끊임없이 외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려의 소리를 정부가 듣게 하여 주십시오. 동성애를 조장하고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며 다음세대를 죄악에 빠뜨리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완전히 폐기되어, 이 땅에 다시는 악법이 허용되지 않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G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1년 12월 13일 ~ 2022년 1월 1일

12월 13일 ~ 12월 18일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12.13(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12.13~17(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12.13~18(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12.14(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12.17(0~24시) ▶제주 초천 / 함덕제일교회(박**)010-5002-2046, 12.17(10시)~18(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그 외 3교회 진행중.

12월 20일 ~ 12월 25일 12.20~21(10~17시) ▶강원 고성 / 가마골교회(홍**)010-3191-8622, 12.20~23(0~24시) ▶전남 담양 / 물댄동산교회(조**)010-6429-7027, 12.20~25(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12.21,23~25(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12.24(13~17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12.26~27(09~21시)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최**)010-4661-4039, 그 외 4교회 진행중.

12월 27일 ~ 1월 1일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12.27~31(10~16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12.27~31(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12.27, 29~1.1(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12.28(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12.30~1.1(10~23시) ▶경기 고양 / 대화사랑교회(김**)010-4058-0675, 12.31(13~17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그 외 3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외로운 캄보디아의 베트남인, 현지 인권단체들도 외면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베트남인들은 현지 인권단체들로부터도 외면을 받고 있다.

몇몇 소식통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저명한 인권단체들이 현재 해체된 야당 지지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의 반발을 두려워하며, 캄보디아 내 베트남 소수민족 공동체들에 대해 자행되는 차별과 침해를 무시하고 있다.

2021년 6월 초부터 캄보디아 당국은 표면적으로 캄보디아가 2022년 아세안 의장국으로 취임하기 전, 그리고 2023년 동남아시아 게임 개최하기 전, 수도 프놈펜 '청소'를 명분으로 톤레삽(Tonle Sap) 강 유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수백 명의 베트남인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인권단체들로부터 제한된 관심을 받아 주로 뉴스 보도의 논평거리로 다뤄졌을 뿐이다. 미국의소리(VOA)의 2021년 6월 15일 기사에서 현지의 인권단체 캄보디아인권개발협회(Adhoc)의 대변인 서웅 센카로나(Seung Senkarona)는 "퇴거 명령을 지지하지만 당국은 수상 생활하는 사람들의 요청을 듣고 그들에게 이사를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Adhoc은 캄보디아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 베트남인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때 이들 불법 이민자들(주로 베트남인들)이 베트남 국적인지 또는 캄보디아에 수 세대 동안 살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 이민자로 목소리를 높이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 Adhoc 조정관인 씨업 소티아리(Cheap Sotheary)는 2021년 6월 당국에게 불법 이민에 대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쁘레아 시하누크(Preah Sihanouk)주에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사업을 하며 캄보디아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말했다.

인권단체, 대중 위협 두려워 베트남인 인권 침해 눈감아

캄보디아의 베트남인 문제는 복잡하다. 한 세기 이상 동안 베트남은 캄보디아 민족주의자들(나중에 더 많이)의 혐오 대상이었다. 2013년의 공식 인구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캄보디아에는 약 6만 3000명의 베트남계 주민이 있지만 실제 숫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그들의 수는 40만~70만 명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캄보디아의 일부 베트남인들은 새로 들어온 이민자들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수 세대에 걸쳐 이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러나 프놈



▲ 캄보디아 프놈펜의 메콩강 유역 모습. 출처: Vicheika Kann/VOA

펜의 소수민족 권리 기구(Minority Rights Organization)에 따르면 공식적인 차별이 있다는 것은 그들의 상당수, 약 90%가 시민권이나 적절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문서가 없다. 이것은 그들이 투표권, 토지 소유권, 심지어 학교에 대한 접근권을 거부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들은 본질적으로 무국적자이다.

“ 캄보디아의 베트남인 문제는 복잡하다. 한 세기 이상 동안 베트남은 캄보디아 민족주의자들의 혐오 대상이었다 ”

이 주제의 민감성과 대중의 반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익명을 요청한 캄보디아의 어떤 소식통에 따르면, 주요 인권단체들은 베트남 소수민족 공동체들에 대해 자행된 공식적인 차별과 인권 침해에 대해 거의 보고하지 않는다. 이 단체들은 이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거나 보고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그것은 베트남인 공동체를 두둔하기 위해 큰 소리로 말하면 더 많은 대중으로부터 위협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에 의하면, "캄보디아에는 자칭 인권 운동가들 사이에서도 반베트남 정서가 깊다."며 "이런 사건에 대해 침묵을 지킨 것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실 이러한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2000년도에 이 나라의 가장 저명한 3대 인권단체 중 시엠립(Siem Reap)주에 있는 캄보디아인권수호연맹(LICADHO)은 수상 마을인 총크니어(Chong Kneas)의 가톨릭

성당의 반발 이후 소수민족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폐쇄했다. 2014년 당시 캄보디아인권센터(CCHR)의 우비락(Ou Virak) 소장은 야당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인종차별적 언어를 비판한 후 살해 위협을 받았다. 당시 LICADHO의 풍찌우켄(Pung Chiv Kek)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실제로 다른 그룹들로부터의 연대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톰 파오트롭(Tom Fawthrop)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풍찌우켄이 2000년대에 LICADHO에서 일하는 자신의 NGO 직원 중 캄보디아의 베트남 거류민들에 대한 차별을 다루기 위해 인권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유감을 품고 있는 사람이 그토록 많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들 세 인권단체의 문서보관소를 열람한 결과, 비록 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인 공동체의 대규모 강제 추출, 그것도 대부분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여러 번 있었고 그들의 무국적 상태의 문제가 지속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권단체들이 베트남인 차별 문제에 대해 관심이 거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LICADHO의 날리 필로제(Naly Pilorge) 이사는 계속된 베트남계 거류민들의 퇴거에 반대했지만, 이 인권단체가 이 문제에 대해 마지막 내놓은 중요한 성명은 2015년에 나온 것으로, "캄보디아는 베트남인 망명 신청자를 송환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해야 한다."는 제목이었다. 캄보디아인권센터는 2014년 또는 2015년 이후 베트남인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dhoc의 문서보관소도 빈약하기는 마찬가지다.

수년간 베트남인 공동체들에 대해 연구한 팀 프류어(Tim Frewer)는 "베트남계 캄보디아인들에

게 영향을 미치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3대 인권 NGO인 Adhoc, LICADHO, CCHR은 침묵을 지킨 역사가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그들은 민족주의 지지자들을 화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 "캄보디아의 인권단체들은 베트남인들을 지지했지만, 그들은 베트남인들의 극단적 민족주의 사상을 인정하지 않고 (캄보디아의)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역사적인 속적... 베트남과 캄보디아

베트남인은 캄보디아 민족주의의 역사적으로 악한(bogeyman)들이다. 베트남은 남쪽으로 서서히 팽창해, 한 때 캄보디아 왕국이 장악했던 메콩강 삼각주 지역으로 확장했으며 지난 수세기 동안 캄보디아를 침략하려고 시도했다. 또



▲ 캄보디아 프놈펜의 메콩강 유역에 살고 있는 베트남인. 출처: Vicheika Kann/VOA

캄보디아인들은 프랑스 식민통치 하에서 베트남인이 역시 식민지인 캄보디아에서 공무원, 세금 징수원 등으로 종종 고용되는 등, 더 나은 대우를 받았다고 인식해 왔다.

론 놀(Lon Nol) 군 참모총장이 1970년 노로돔 시하누크 정부를 전복하고 비록 단명했지만 크메르 공화국을 세운 후 그의 정부는 베트남 소수민족 공동체의 종족 '정

“ 캄보디아 당국은 수도 프놈펜 '청소'를 명분으로 톤레삽강 유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수백 명의 베트남인들을 쫓아냈다 ”

그러나 이 문제는 인권단체들로부터 제한된 관심을 받는다 ”

화' 캠페인을 단행했다. 1975년 론 놀 정권이 당시 급진좌익 무장단체인 크메르루주에게 함락된 후, 이 극단적인 모택동주의 정권은 캄보디아의 소수민족 집단들, 특히 베트남인, 찰(Cham)족, 중국계 등에 대한 집단 학살을 주도했다. 그러나 오늘날 베트남과 베트남인들에 대한 양극화된 시각은 베트남이 크메르루주 정권을 전복한 1979년 1월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때 베트남은 하노이에서 훈련된 공산주의자들과 크메르루주 탈영자들과 함께 캄보디아를 침략했다. 그 무리 중에는 현 캄보디아 총리인 훈 센(Hun Sen)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는 그 후 베트남이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주의 정권의 수뇌로 취임했다. 1979년 크메르루주가 전복되고 1990년대에 국가의 내전이 끝나 평가가 찾아왔고 나라의 경제 발

전이 재개되었을 때 국가의 회복이 이루어졌다. 이 이야기에서 캄보디아의 회복은 집권 캄보디아인민당(CPP)의 공로이고, 대량 학살 정권의 전복에 대한 베트남의 지원 덕분이다. (출처: The Diplomat 2021. 7. 6) 자료제공: 동남아선교정보센터 [GPNEWS] 조흥국 교수(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기획 | 창조 이야기 (65)

진화의 증거가 없어도 진화를 믿는다... 창조주의 간섭 싫어서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공룡이 새로 바뀌었다.’는 것 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없다. 성경은 하나님이 새를 5일째, 파충류를 6일째에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파충류 다음에 새가 생겼다고 주장한다. 진화론의 모든 것은 성경의 기록과 다르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새의 진화에 대한 모든 것은 거짓말이다. 시조새(archaeoraptor liaoningensis)는 1999년에 공룡과 새의 중간체로 기록됐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중간체가 발견됐다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실었다. 그러나 두 달 후,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됐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것을 여전히 가르치고 있다. <중국 의 깃털 달린 공룡>이라는 제목의

책도 있다. 왜 이미 틀렸다고 증명된 것을 그들은 여전히 가르치고 있을까? 깃털이 달린 공룡에 대한 모든 주장들은 모두 거짓으로 증명됐다.

공룡과 새의 차이점 극복될 수 없다

공룡과 새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파충류는 네 개의 완벽한 다리가 있고, 새는 두 개의 다리와 두 개의 날개가 있다. 그러니까 공룡의 앞다리가 날개로 바뀌려면 그 중간 어딘가에서는 다리 반 날개 반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은 그런 날 동안은 뛰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진화론자들이 ‘시조새가 진화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화론을 믿는 조류학자 앨런 페두치아는 “이것(시조새)은 중간체가 아니다. 그것은 비행을 위한 바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면서 “뇌의 모든 특징들이 비행을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조새는 ‘고대의 날개’라는 뜻이다. 시조새는 특이하게 날개에 발톱이 있다. 오늘날 12가지의 새들이 날개에 발톱을 가지고 있다. 백조, 따오기, 호아친 등이다. 진화론자들은 시조새의 부리에 이빨이 있다고 말한다. 이빨이 있는 새는 많지 않지만, 별새도 부리에 이빨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새들은 이빨이 없다. 사실상 포유류 중에서도 이빨이 있는 것들도 있고 없는 것들도 있다. 새와 물고기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시조새가 중간체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중국의 공룡 새 화석은 위조였다.

깃털과 비늘이 둘 다 케라틴으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다. 이것들은 같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유사성은 거기에서 멈춘다. 사실 새와 파충류는 폐 체계가 다르고, 생식 체계, 몸의 표피, 뇌, 순환계도 다르다. 공룡과 새 사이에는 수천 가지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특히 새의 고관절과 도마뱀의 고관절, 공룡의 고관절이 아주 다



▲ 진화론자들은 시조새가 공룡과 새의 중간체이며, 진화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출처: mozaweb.hu

르다. 진화론자들에게 어떤 종류의 공룡이 새로 진화했는지 물어보면, 그들은 아마 “도마뱀 고관절”이었다고 대답할 것이다. 즉 공룡이 어떻게 새로 진화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다는 말이다.

“창조자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유추이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창조를 거부한다. 영국의 생물학자 줄리언 헉슬리는 “우리가 종의 기원이 좋아서 펼쳐 된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존

재가 우리의 성적 관습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생물학 철학자 마이클 루스는 “나는 열렬한 진화론자다. 우리가 진화론을 믿는 것은 유일한 다른 선택이 창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맞다. 그것이 유일한 다른 선택이다. <계속> [GNNEWS]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1. 11. 11 ~ 12. 2 (가나다 순)

개인 강경영 권정숙 권혜령 김경선 김경애 김다경 김선희 김성훈 김수미 김애심 김형숙 박경희 박성규 박현숙 신용선 안민자 안수경 윤미자 이사라 이영선 이영옥 이장원 이종훈 이주선 이진희 임수일 장근혜 정금자 정영숙 조명숙 조형광 차익수 차인순 최점욱 하은숙 홍고집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김화제일교회 모리아선교회 목자교회 반석중앙교회 새순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웹 선한목자교회 시흥교회 순화선교단미주지부 시은교회 신한테크 열매교회 안양구터기교회 오예교회 은혜선일교회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주소망교회 참종앗더라교회 하원교회 처음사랑교회 토론토한침례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재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선교 통신

인도에서 복음캠프를 통해 삶이 달라진 목회자를 만나다



▲ 인도 현지 목회자들. © 복음기도신문

인도를 순회 방문하며 뱅갈로에 들렀다. 다양한 현지인들, 목회자들을 만나고 많은 지역을 다녔다. “눈을 들어 받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요 4:27~38) 지금 인도는 추수할 땅이라는 사실을 보게 됐다.

첫 번째 일정으로 사슬루 지역에 있는 빅토리아 고아원에 선물을 들고 방문했다. 고아와 신전창녀인 ‘테바다시’에서 구출된 여성 여러 명이 함께 살고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아이가 된 것

처럼 운동장과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놀았다.

다음 날 첼리케레교회를 방문해 인도복음기도동맹(India Gospel Prayer Association, IGPA) 리더십 모임에 함께 참여했다. IGPA 리더십은 총 10명이었다. 이들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마다 말씀기도회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리더십 모임을 갖는다.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모이다가 오랜만에 열린 오프라인 모임이었다. 이분들은 모두 현지에서 열린 복음캠프에 참여했다. 그렇게 총체적 복음을 접한 후 변화된 삶과 복음이 결론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돌아가며 나누었다. 현지 목회자들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듣게 되었다. 복음에 반응하고, 구체적인 삶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목회자들의 나눔이 큰 힘과 격려가 되었다.

이 중 앤드류 목사님은 복음캠프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들을 때, 정말 기뻐했다고 고백했다.

“나는 전도용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도용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 곧 나, 나 곧 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복음이 모든 죄로부터 해방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칸트리지 목사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내가 정말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매일 나가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회의 열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빌 1:21) 모든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는 아내와 딸에게도 복음을 나눴는데, 딸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복음스터디를 시작한 칸트리지 목사님은 미래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제이슨 형제는 말씀을 따라 기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이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삶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을 얻었습니다. 매일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복음이 자신의 삶에 최우선이라고 고백했다.

이곳에 복음의 씨가 뿌려진 데는 크리스토퍼 장 선생님과 디모데탁 선생님의 섬김이 있었다. 그동안 진행된 14번의 복음캠프를 통해 현지 목회자들의 삶이 바뀌고 인도에 복음의 증인이 일어서게 됐다. 복음으로 변화된 목회자들의 삶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도 같았다.

한편, 카르나타카(Karnataka)주에서 2주 안에 반개종법이 통과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기도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종교적인 박해가 거세지고 교회는 고난을 받게 되는데, 반개종법을 막아달라는 기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GNNEWS]

이경희 선교사
(순화선교단 남아시아지부)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궁금하게 하는 비즈니스 선교를 꿈꾼다”

거룩한 비즈니스를 소망하는 김진수 장로(트리니티소프트)



제공: 김진수 장로

김진수 장로(트리니티소프트 대표)는 최근 전문인 선교 포럼에서 'IT비즈니스와 하나님의 기업가'라는 주제로 IT비즈니스에서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임을 고백했다. 치열한 경쟁으로 전쟁터나 다름없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거룩한 비즈니스, 정결하고 정직한 비즈니스를 외친 김 장로의 고백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울림이 된다. 남모름 어려움도 많았을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그의 고백을 들어본다.

- 먼저 운영하고 계신 트리니티소프트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기업의 정보서비스든 인터넷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정보들이 외부의 해커나 공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의 취약점과 오류들을 찾아주고 그것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가이드를 제공해주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이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과거에 다녔던 회사에서 बैं킹 시스템을 온라인화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기업들의 웹사이트 보안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쉽게 말해 첨단빌딩을 만들기는 하는데, 잠금장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업을 도전해보자고 생각해서 2005년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작도 빨랐고 아이টে็ม도 좋아서 빠르게 성공했습니다. 3년 만에 CCRA(국제제상호인증협정) 국제 인증서도 받고, 회사도 빠르게 성장했죠.”

- 부모님도 사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사업적 재능을 배우신 것 같네요.

“재능보다도 어려서부터 사업가이셨던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많은 믿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사를 경영하려고 몸부림치셨던 아버지의 모습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와 같은 크리스천 사업가가 되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도 아버지(고 김용길 장로)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업가이자 장로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 저를 비

즈니스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기업경영하던 선친의 삶 기억

-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할아버지(고 김추후 장로)는 1945년에 아세아산업공사란 회사를 창업해 농기계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당시는 굶주려 죽는 사람도 있을 때였는데, 할아버지는 우리 민족이 배고프지 않게 살게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영농화를 위해 농기구가 개발돼야, 우리 민족이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할아버지는 공장 옆에 교회도 세우시면서 한국교회를 많이 섬기셨고, 아버지도 역시 사업을 하시면서 선교현장을 방문하시고, 많은 선교사들을 섬기셨습니다.”

- 장로님이 사업을 시작할 때 부모님의 도움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지레 짐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재정적인 도움을 전혀 주시지 않았습니. 저도 원하지 않았어요. 대신 기도로 지원해주셨지요. 나중에 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정당하게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자금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갚았어요.(웃음)”

- 할아버지께서 민족을 위해 사업을 시작하셨다는 말씀이 참 감동적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영향을 받은 사업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처음 제품 출시 시점이 시장에서 필요로 할 때여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회사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초고속으로 성장하면서 제가 매우 교만해졌습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웬만한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를 봐도 대단해 보이지 않았습니. 왜냐하면 저희 회사의 순이익은 웬만한 제조업은 결코 따라올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십일조도 가장 많이 내고 믿음이 좋다고 칭찬도 받았습니. 표현은 안했지만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생각했죠.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저를 다루기 시작하셨습니.”

- 어떤 일이 전개될지 짐작은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2009년도 말이었는데, 한꺼번에 몇 개 부서의 팀장들이 회사를 그만뒀습니. 제가 개발자 출신 CEO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으면 사업을 유지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쟁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유사 제품으로 뛰어들면서 우리 회사가 밀리기 시작했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저를 선교하시기 위해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마냥 원망했습니다. 당시 선교단체나 NGO단체들을 매월 10군데 이상 후원하고 섬겼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제가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을 위해 아무리 섬긴다고 해도 주님이 쓰실 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복음의 진리와 무관

간, 죄짓고 넘어집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동입니다. 그래서 항상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께 초점을 집중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한 전문인 선교인지 또 무엇을 위한 전문인 선교인지 그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저를 변화시키셨어요.”

- 그런 원리원칙을 지키려면 쉽지 않은 순간이 많겠지요?

“순종의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계속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믿음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날마다 매순간 믿음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제가 속해 있는 산업현장이라고 여겨집니다. 전문인 선교사 중에 ‘말씀에 순종하다 망했다.’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

주셨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나’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 비슷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목적과 방법이 바뀌는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내 문제 해결과 소원성취를 위해 복음을 이용했던 내가, 복음을 위한 전문인 선교를 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위한 전문인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전문인 선교를 한다면 아무리 ‘선교적’이라고 포장해도, 그 기업은 죄인의 자아추구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가장 우선순위로 설정해야 올바른 전문인 선교의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복음을 위한 ‘나’가 되기까지 과정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세요.

“제 인생은 복음학교 이전과 이후로 달라요. 머리로만 복음을 알고 의무적으로 말씀을 지켜왔다면, 복음학교 때 십자가를 정면으로 만나면서 복음이 실제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 복음이 실제가 된다는 것은 복음이 내 말과 행동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더군요. 이전에도 선교적 목적으로 기업을 경험했지만, 거기에는 제 마음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 주님도 잘되고 나도 잘되는 식이었죠. 그러나 복음학교 이후에는 기업 자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회사 말고 다른 일에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언제든지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 복음학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2008년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하면서 2년 동안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됐습니. 그때 김용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 선교단체와 연합해서 말씀기도도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학교에 대한 궁금증과 갈급함이 생겼습니. 또 거기 정말 진짜야?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제가 나름대로 평생을 교회에서 먹고 자랐고, 4대째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부심이 있었는데, 김용의 선교사님 메시지에서

(6면에 계속)



▲ 아프리카 선교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제공: 김진수 장로

한 삶을 살면서도 선한 행위를 한다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승승장구하던 회사에 다가온 위기

- 아주 가난한 마음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 있으셨군요.

“처음에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직하고 반듯하게 원리원칙대로 살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 그리고 주님이 저를 십자가 복음 앞에 세워주셨어요.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제가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든 변질될 수 있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습니. 제가 십자가로부터 시선이 멀어지는 순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전문인 선교 집회를 가보아도 예수 믿고 성공한 이야기는 많지만, 순종하다 손해 보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망하려고 사업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러면서 ‘비즈니스 순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도록 하는 비즈니스 말이죠.”

- 하나님이 그렇게 장로님을 비즈니스 선교사로 만들어가셨군요.

“나를 위한 복음?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예전에 주님께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주 유명하고 성공한 전문인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일 많이 할게요.’ 그런데 복음을 알아 가면, 알아 갈수록 이것이 성숙하지 않은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빛나는 믿음 (2)

허다한 증인들의 고백 “살려면 이 길을 선택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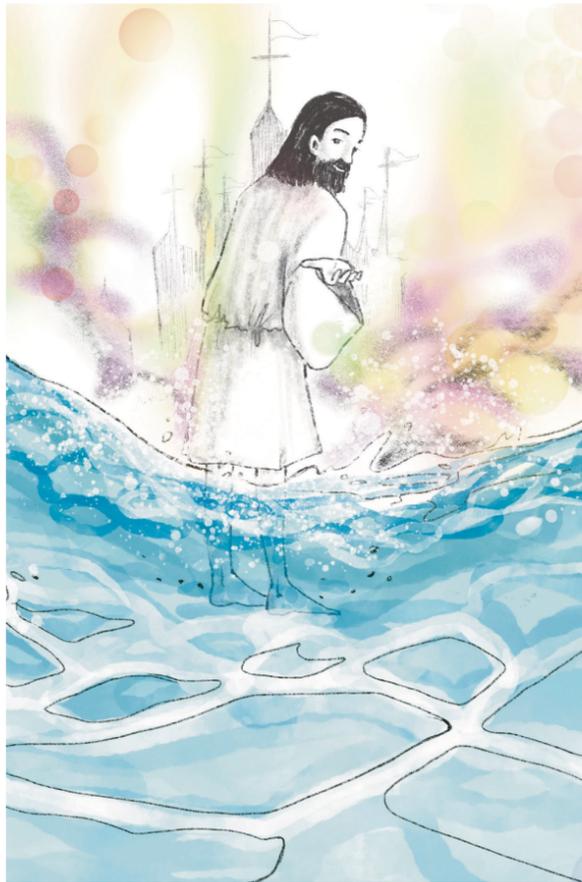
코로나19에 반응하는 우리 모습에서 우리의 실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의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영적인 권위가 무엇인지, 우리의 기도 실력은 어떠한지...

교회의 모습 속에서 나의 영적인 형편이 얼마나 초라한지 드러났다.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이 정도면 나 괜찮은 사람 아니야?' 보편적 기준에 나를 비추면서 안위하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났다. 내가 의지하고 자부심을 느꼈던 나의 안정감의 터가 무엇이었는지 다 드러났다.

보이는 세상에 속고 살아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현실로 믿고 살았던 돈, 사람들의 인정, 평판에 매여 울고불고했던 그 모든 기준이 되었던 이 세상이 한 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허무한

것들이라는 것을 코로나19를 통해 경험했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바빠서 기도 못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바쁘고 세련되게 살아왔던 우리의 일상. 코로나19로 그 일상이 멈춰진 지금, 무엇이 제일 걱정이 되는가?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 많은 이들이 한계에 부딪히며 끔찍한 부도를 경험하고 실패를 받아들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전염병이 세계를 완전히 바꿀 것이며,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법, 제도, 환경 등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의 충격은 수십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곧 구원의 날이라고 말



일러스트=이예민

한다(고후 6:2).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말한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고 명확한 결론이다. 그런데도 이것을 인생의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두 마음을 품고 헛갈리다가 이리저리 부딪히는 사이에 인생은 다 지나가 버린다. 결국 돌아설 기회도 없이 망하는 사람을 얼마나 더 보아야 하겠는가? 믿음 없이 사는 인생의 끝을 보면서도 언제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론 내겠는가? 아직도 결론 내지 않았다면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의 말을 들으라. 그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말이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히 11:1~2)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생과 역사 한복판에서 육신의 본성을 거슬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승리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결론이 있었기 때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었다. 육체를 입고 있으나 영으로 사는 자들이요, 땅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외친다. "이 길 밖에 없다! 살려면 이 길을 선택하라!" (2021년 1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광고*

carmel
D/E/S/I/G/N
카르멜디자인

포스터_현수막_로고_홈페이지

idea design 아이디어 디자인

미자립교회, 선교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www.carmel.company
carmel0316@naver.com

'카르멜디자인' 채널 추가

버거데이
HEART MADE
BURGERDAY

만남과 나눔을 요리하는 버거데이
건강한 샌드위치 주먹밥 과일 단체도시락

010-2207-2787 | 대구시 수성구 천음로 117

강원냉동 엔지니어링

취급품목 각종제빙기, 중대형냉장고, 쇼케이스, 슬러시기계
출장 A/S 및 신품 중고품 판매

대표이사 이병철 장로
033-744-2933 / 010-3856-4802
gkcm119@naver.com

Interview <5면에 이어>

복음을 들으며 소망하게 된 복음의 삶

모태신앙으로도 안된다며 '모태장아찌'라고 표현하는데 그 말이 제 마음을 찢었던 게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의 갈등을 통해 은혜를 사모하게 됐어요.

- 복음학교에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요.

“지금도 너무 생생합니다. 복음학교를 시작하는 첫 날부터 내가 얼마나 존재적으로 타락한 사람인지 십자가에서 부딪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머리로는 복음이 99% 믿어졌지만, 1%는 여전히 안 믿어졌습니다. 복음은 다 알겠고 은혜로운데, 복음에 내 인생 전부를 바치기에는 1%가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복음학교를 마치는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예배시간에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데 강대상 뒤에 있는 십자가에 제 아들이 못 박혀 있는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 뭔지 알겠더군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얼마만큼의 사랑인지가 깨달아지면서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GNPNEWS]

C.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복음기도동맹군들과 함께. 제공: 김진수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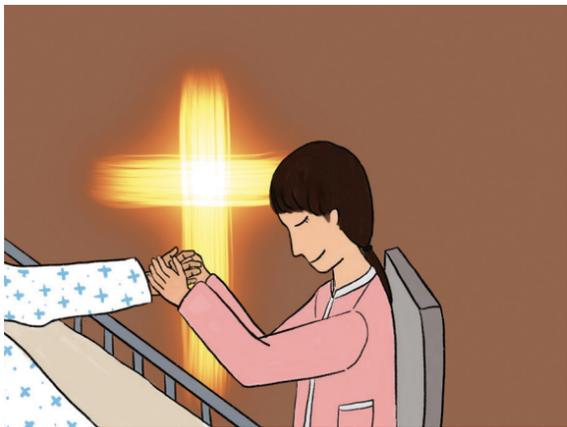
* 복음과 기도의 삶을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은혜로 게재되는 광고 지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도하고 주사 놓아드릴까요?”

딸부잣집에서 2남 5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내가 3살 때 돌아가시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고, 그런 상황에 잘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없는 나라는 존재는 가족들에게 민폐만 끼치는 것 같아 죽고 싶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 집사님의 인도를 받아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사춘기를 고약하게 치르는 나를 위해 교회에 잘 다니는 한 집사님 딸을 친구로 붙여주셨다. 어느 날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갔는데, 친구가 기도를 하고 있어 나도 떨쩍이 앉아 눈을 감았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너무 생생한 말씀이 가슴에 인식되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나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았고 두어 시간 통곡을 하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다.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갑자기 세상이 환하게 보이는 듯 했다. 그때부터 나는



일러스트=고은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간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간호사로 강남세브란스에서 20년을 근무했다. 첫 출근을 하기 전, 목사님이 나를 위해 선교사로 파송한다고 안수기도를 해주셨다. 근무 기간 내내 파송된 선교사라는 마음이 있었다. 힘든 환자들을 보면 기도하곤 했는데, 어느 날 한 환자가 마음에 쓰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 환자는 난치성

질환으로 10년 동안 심한 고통으로 수없이 입원하고 10차례 정도의 수술을 받았다. 내가 출근한 그 날도 수술 후 5일이 지났지만 통증이 심하여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환자가 진통제를 달라고 하여 마약성 진통제를 주사기에 재어 갔다. 환자가 너무 불쌍해 보였고 나는 무슨 용기가 났는지 불쑥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도를 하고 주사를 놓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환자의 동의를 받고 6인실 병실에서 환자를 붙들고 기도를 했다. “하

나님 죽을 거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울면서 기도를 마치고 주사를 놓아주고 병실을 나왔다. 환자는 그 날 밤 수술 후 처음으로 조금 잤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비번이라 3일을 쉬고 출근했을 때 환자가 너무 좋아진 상태로 나를 향해 달려왔다. 자기가 기도실에서 기도를 했으며, 예수 믿고 싶다고 성경을 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날 새로 산 성경책을 가져다 드리고 교회와 연결해 드렸다. 환자는 점점 회복되거나 무사히 퇴원했다.

되 돌아보니 능력도 지혜도 없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부끄럽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GPNEWS]

안혜영

복음의 소리 316
1670-3160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도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전화(1670-3160)의 다양한 상담사례를 요약, 소개합니다.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마음을 나눠준 내담자들의 경험과 나눔이 동일한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귀한 통로 된 내담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영적 체험도 했지만, 아내와의 갈등으로 괴롭습니다

Q 무속 신앙 가정에서 자라다가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체험도 했지만, 여전한 자아의 모습 때문에 아내와 갈등이 깊어갑니다. 자살 기도를 할 정도로 괴롭습니다.

A 자아의 삶이 여전하여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셔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신령한 영적 체험 등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였기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없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당신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았다. 들었다.” 하는 영적 체험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정확히 복음 앞에 서는 일을 가로막기도 하는데, 즉 “이런 신령한 체험을 하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존재적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새 생명, 예수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옛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이 땅에서의 고통이 일상에서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더 이상 옛 사람의 반응으로 살지 않도록, 즉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이 탑재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입니다. 복음 앞으로 나아오셔서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존재적으로 죄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울 것도 고쳐 쓸 것도 없는 십자가의 죽음이 마땅한 그 죄인입니까? 그런 당신의 이름표를 달고 당신이 되어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분을 당신의 새 생명으로 받으시겠습니까? [GPNEWS]



北 정치범수용소 재소자들 갑자기 사망... 새로운 정치범이 그 자리 채워

한반도에서 가장 고통받는 이웃이 살고 있는 북한의 회복을 소망하며, 북한의 현실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최근 몇 달 사이 수많은 재소자들이 사망했는데도, 그만큼 코로나19 방역 및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혐의자들로 채워져 전체 정치범수용소 인원은 큰 변동이 없다고 데일리NK가 최

근 전했다. 매체의 북한 내부 소식통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당국이) 수많은 법을 제정하면서 관리소(정치범수용소) 입소자가 많이 늘어났다.”면서 “악성 전염병(코로나19)으로 국경봉쇄 후 국가 최대 비상 방역 체제를 유지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정치범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

했다. 북한은 지난해 비상방역법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정치범으로 취급하고 있다.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는 약 23만 2400여명(7월 기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지난해 3월 대비 최소 2만 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소식통은 18호(북창) 관리소는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140여 명이 추가로 입소했고, 다른 관리소에도 구금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정치범수용소에 새로 입소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지만, 전체 수감자 규모는 변화가 많지 않다면서 “이유는 올 8~11월 사이에 기존 입소자들이 갑자기 죽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망 원인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

다. 한편,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은 열악한 위생 속에 방치돼 있으며 여러 질병에 시달리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소식통은 악성 전염병으로 사망했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관리소는 각종

질병, 세균, 바이러스(바이러스)의 종합 서식장이어서 병에 걸려 죽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코로나 방역조치는 초병들이나 관리자들에게만 하고 있으며 범 죄자들은 ‘명’이 아닌 ‘개수’

로 표시될 만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어 방역조치는 하지 않는다. 북한 당국은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를 배신자일 뿐 공민(公民)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어 이들의 건강이나 죽음에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다. [GPNEWS]



▲ 북한 정치범수용소를 다녀간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그린 그림. 출처: 유튜브 채널 YTN news 캡처

한국 영화 5분 시청한 중학생... ‘징역 14년’ 중형 선고

최근 북한에서 한국 영화를 단 5분 시청한 중학생이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데일리NK가 최근 전했다. 매체의 양강도 소식통은 “지난 7월 해산시의 초급중학교 한 모(14세) 학생이 남조선(한국) 영화 ‘아저씨’를 시청하다 체포됐다.”면서 “이 학생은 영화 시청 5분 만에 단속됐는데, 14년의 노동교화형을 선

고받았다.”고 전했다.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설명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남조선의 영화나 녹화물, 편지, 도서, 노래, 그림, 사진 등을 직접 보고 듣거나 보관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제 27조). 법에는 청소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적용한 것은 어

리다고 봐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로 엿보인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청년들 사상교육을 강화하는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했고, 이후 북한 매체에서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투쟁을 강도 높게 전개하라는 식의 선전선동 작업을 벌이고 있다. [GPNEWS]

다시복음앞에

RETURN to the GOSPEL

2021. 12.12 - 12.15

그 영광을 회복하라

사 61:1-3

Restoration



박한수 목사
제자광성교회 담임목사



에릭/현숙 풀리 대표
순교자의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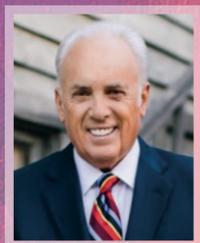
조영길 변호사
법무법인 아이앤에스(I&S)
대표 변호사



임현수 목사
캐나다 큰빛교회 원로목사



박정곤 목사
고원교회 담임목사



존 맥아더 목사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담임목사



주누가 선교사
지오선교회 대표



최상훈 목사
화양감리교회 담임목사



김지연 대표
사)한국가족보건협회



김용의 선교사
LOG미션 대표

|참여방법|

zoom과 youtube '채널ANSer'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으로 zoom으로 참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밴드를 통해 zoom링크와 아이디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집회에 대한 기타 정보들도 밴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2021다시복음앞에'를 검색)

|문의|

복음기도동맹 사무국 (010-8453-4641, 010-5663-4641)

|주최|

순회선교단, LOG미션, 기도24·365, 헤브론원형학교, 헤브론선교대학교
복음과기도미디어, 전능자의그늘(ShAM), 요셉의창고미니스트리